

서 교육감, 작은학교 살리기 본격 행보

익산 옹포초 방문해 주민·학부모와 대화의 시간 가져... 골프 특성화교육 등 지역특색 살린 교육과정 제안

서거석 교육감의 작은학교 살리기 행보가 본격화했다.

이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17일 익산 옹포초등학교를 찾아 지역 주민 및 학부모들과 함께 지역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으로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옹포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인근 학교와 연계하고, 더불어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경숙 변장, 조남석 시의원, 김수성 산림조합장, 김철순 새마을부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 교육감은 옹포초·옹포중·합일고를 연계한 골프특성화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옹포초는 교내에 골프연습장을 갖추고 있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골프를 가르치고 있다. 특히 합일고는 국내 정상급 골프선수를 여럿 배출한 학교다.

서 교육감은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전북교육청과 옹포 지역민들이 소통하고 협력해서 옹포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자"면서 "앞으로도 교육 주체들과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특성화 교육 과정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익산 옹포 지역 주민 및 학부모들은 옹포초를 대상으로 하는 골프특성화교육 육성 아이디어



서거석 교육감은 17일 익산 옹포초등학교를 찾아 지역 주민 및 학부모들과 함께 지역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으로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어를 서 교육감에게 제안해 이를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변영자 주민자치위원장은 "옹포초등학교는 전교생이 20명에 불과한 작은 학교라 폐교의 불안감을 늘 안고 있다"면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골프 특성화교육을 통해 '찾아오는 학교', '지역을 살리는 학교'를 만들면 좋겠

다"고 말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에서는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생각으로 늘 시·군지역과 연계한 특성화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기환 단장은 "이번 최상위 평가를 통해 '찾아오는 학교', '지역을 살리는 학교'를 만들면 좋겠

다"고 말했다. 현재 금마축공원 제3구장은 익산 지역 축구 육성학교(이리동초, 이리동산초 등) 훈련장으로 사용될 계획으로, 도교육청과 익산시가 5대 5 대응 투자 방식으로 총 2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은성기자

기업신용평가 '최고 등급'

전북대 산학협력단, 성장성·수익성 등서 좋은 평가 받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조기환)은 2022년 산학협력단 기업신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e-1(AAA)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해당 기관이 최상위 신용 능력을 보유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기업신용평가는 해당 기관의 신용도를 채무상환 능력과 재무건전성 등의 관점에서 산출해 신용위험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의미하며, 국가공인기관이 평가하고 있다.

전북대 산학협력단은 총 자산 및 매출액 증가율을 가늠하는 성장성과 총 자산 순이익, 매출영업 이익 등을 보

는 수익성, 그리고 안정성(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과 활동성(총자산 및 매출채권회전율) 등에서 두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연구비 수주 실적 향상을 통한 당기 순이익 증가와 투명한 재무·현금흐름표·부채 비율 등에 대한 꾸준한 관리를 통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조기환 단장은 "이번 최상위 평가를 국립기관이 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의 효율적 경영능력과 우수한 신용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최상위 평가를 통해 운영입찰 등에 대한 평가 시 기업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따



전북대학교 전경.

라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 80점 가운데 최대 30점까지 반영될 수 있기 때

문에 운영과제 선정 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전주대학교에서 17일 2021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이 열린 가운데 졸업생과 가족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주대, 2021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

23일까지 학위복 대어·사진 촬영 위한 각 단과 대학별 포토존 운영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17일 2021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일주일간 학위복 대어 및 졸업생 사진 촬영을 위한 각 단과 대학별 포토존을 운영키로 했다.

이번 후기 학위 수여 졸업생은 학사 420명, 석사 54명, 박사 63명 등 총 537명으로, 국어교육과 이경훈 학생 등 95명이 수상했다.

한편, 전주대는 1964년 개교한 이래 현재까지 학사 79,684명, 석사 1,709명, 박사 895명 등 총 82,288명의 인재를 배출했다.

특히 전주대는 기독교 정신의 구현이라는 건학이념 아래 '교육 가치 창출 1위, 기독교 명문대학'이라는 대학 비전을 정립해 학생 성공과 지역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창의적 실용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장은성기자



전주비전대 LINC 3.0 사업단은 지난 16일 LINC 3.0 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주비전대, 사업아이디어 경진대회

12개 학과 351명 학생 참여... 총 43개 작품 출품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단장 최승훈)은 지난 16일 LINC 3.0 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 아이디어 제안 평가를 중심으로 외부기관과 산업체, 변리사 등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 내 공업계열,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의 12개 학과에서 351명의 학생들이 28개 산업체와 협력해 총 43개의 작품을 출품, 전자과와 의사이클링 소재를 이용한 LED '패시브' 등의 작품이 선정됐다. 이 대학 LINC 3.0 사업단은 이번 경

진대회에서 선정된 우수 작품 아이디어로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오는 9월 중 2차 심사로 교내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를 거쳐 10월 개최 예정인 '2022년 VISION EXPO'에 해당 작품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최승훈 단장은 "전주비전대의 LINC 3.0 사업은 공유와 협업을 통한 자가확장형 선순환 산학협력 혁신 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참여 산업체와 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우수작품들을 제작해 학생들의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겠다"고 전했다.

/장은성기자

기초학력 향상 계획 수립 본격화

전북교육청, 업무담당자회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8층 회의실에서 2022년도 하반기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 초·중·고 등 담당장학사 협의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기초학력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기초학력 향상·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지역교육지원청에 설치될 학력지원센터 기능과 역할 정립을 위한 IT팀 구성과 기초학력 진단 및 향상도 검사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기초·기본학력 신장'은 서거석 교육감의 주요정책 중 하나로, 이를 실현할 추진과제로 기초학력 책임시

스템 구축, 교육지원청 내 학력지원센터 운영, 권역별 수학적센터 운영, 독서·인문교육 강화 등을 설정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앞으로 시·군 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학력 향상·지원 방안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초학력은 공교육의 의무이자 학생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이기도 하다"면서 "학생별·학교별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이 더욱 세심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2학기부터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력향상도 평가와 기초학력 실태 조사를 실시, 10월 이후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기초학력 진단교사 100여 명을 배치할 계획이라.

/장은성기자

학부모라면 알아둬야 할 한국 교육의 실상

전북대 박성수 사무국장 '대한민국에서 학부모로 산다는 것' 출간



전북대학교 박성수 사무국장(사진)이 대한민국 교육 현실과 대안 등을 담은 책인 '대한민국에서 학부모로 산다는 것'을 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작가 따르면 이 책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순간부터 확 바뀌는 부모의 삶 그리고 부질없다고 스스로 포기처분하는 한국 교육에 대한 그들의 정당한 의문과 혼돈, 체념 그리고 욕망, 이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마음과 교육 현실을 냉철하게 짚는 책이다.

특히 교육부에서 30년간 교육정책을 다뤄 온 저자가 대한민국 학부모에게 건네는 공교육과 입시제도의 진실, 학부모의 교육철학에 대해 말하고 있다. 대다수 학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며 느끼는 것들을 짚고 학부모라면 알아둘 우리나라 교육의 실상을 알려주고 있다.

작가는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한



대한민국에서 학부모로 산다는 것 책 표지

국 공교육의 역할과 철학, 목표는 무엇일까, 한국 교육에 의문을 던지는 학부모라면, 아이의 진정한 공부와 삶의 질을 갈구하는 학부모라면 사교육에 노후자금을 쏟아붓지 않아도 되는 교육을 꿈꾸고 대학만이 목표가 아닌 좀 더 의미 있는 수준의 공부를 공교육에 원하는 학부모라면 이 책을 통해 마음껏 물음표를 던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장은성기자



전북교육청,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설명회

전북도교육청은 17일 전북도, 서울시 교육청과 공동 추진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참여하는 농촌유학 협력학교는 지사초, 대리초, 운주초, 동상초, 동산초, 조림초 등 6개교다. 이후 권설될 등을 통해 농촌유학 참여 시·군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사업설명회에서는 △전남 죽곡초등학교의 농촌유학 운영 사례 △농촌유학 협력학교 운영 준비 안내 △지역별 지원 협의를 통해 협력학교 운영의 방향성을 제고하고, 지역과 기관간 협력을 통해 농촌유학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 대상은 협력학교 교직원, 도청과 시군청 담당자,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이며, 농촌유학 운영일정과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도교육청 균형발전·방과후담당 장학관은 "찾아오는 학교 교육을 통한 귀촌을 유도해 학생중심의 전북교육을 서울지역 학생들에게도 소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